

核(形態)과 非核(意味)의 同形(心理運動形態)의 分析理論의 定立에 관하여*

——人稱과 動詞를 中心으로——

朴 亨 達

(人文大 言語學科 敎수)

言語活動을 體系들의 體系¹⁾라고 할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, 이 설명하는 體系가 설명되는 體系들에 대하여 最大여야 한다는 것, 그리고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最大인 동시에 정밀한 心理運動形態의 조직²⁾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.

그런데 만일에 이 心理運動形態의 조직이 “形態가 기다리는”³⁾ 質料(意味)의 테두리속에서만 보아진다면, 다시 말해서 “質料(意味)↔形態”라는 순서에서만 보아진다면, “質料(意味)를 거부하는”³⁾ 분명한 形態, 즉 “質料(意味)↔形態”라는 逆의 순서에서 보아진 形態를 보지 못하게되며, 따라서 우리는 “質料(意味)를 기다리는 동시에 거부하는 形態”라는 二重의 성격을 띤 혼돈상태에 머물게 된다.

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관점을 필요로하게 되는데, 그것은 곧 心理運動形態의 조직 내부에서 두개의 분명히 구별되는 유형의 異(逆)方向의 心理運動形態 즉 그 하나는 下降的(展望的)이고 連續的인 形態 즉 “質料(意味)를 거부하는 (形態의 實現을 위한, 그리고 質料(意味)의 形態로의 統一을 위한) 形態” : “形態↔質料(意味)”와, 다른 하나는 上昇的(回顧的)이고 不連續的인 質料(意味) 즉 “形態를 기다리는 質料(意味)” (=위 : “質料를 기다리는 形態” 참조) : (質料(意味)의 實現을 위한 그리고 質料(意味)의 形意로의 統一을 위한) “形態↔資料(意味)”를 假定하고, 첫째의 心理運動形意를 둘째의 心理運動形態 즉 不連續的이고 序列的(被抱括的) 形態와 구별되는 連續的이고 基本的(抱括的) 形態로 잡는 일이다.

不連續的(혼돈상태의) 類型的 心理運動의 조직 즉 : 오로지 質料(意味)의 테두리속에서 보아진 “質料(意味)↔形態”인 동시에 “資料(意味)↔形態”에서, 두개의 분명히 구별되는 類型

* 本稿는 1991年 6月 2日 Pont-à-Mousson(프랑스)에서 개최된 第六次 國際 心理力學論 理論言語學大會(6^{me} Colloque International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/6th International Colloquy of Psychomechanics of Language)에서 發表된 論文을 옮긴 것임.

1) Gustave Guillaume (1973), *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*, p.176.
Roch Valin (1954), *Petite Introduction à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*, Québec p.86.
2) Guillaume (1973), p.214.

개념을 고려에 넣어서, 그들(連續/不連續)의 순서⁹⁾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. 同形이란, 心理運動形態의 두 項(“形態 \leftrightarrow 質料(意味))의 混同/同一化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므로, 그리고 그 同形的 순서⁹⁾는 그것이 零(ϕ)의 同形으로서의 連續的인 성격: 形態 \rightarrow 質料(意味)를 띄었느냐 혹은 零이 아닌(=1) 同形으로서의 不連續的인 성격: 形態 \leftarrow 質料(意味)를 띄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, 주어진 心理運動形態의 同形的分析 내지 지적은 그것의 근원적 내지 生成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.⁹⁾

回顧的으로, 즉 不連續的으로, 세계의 同形的 類型 가운데 제일 不連續的인 外部的(=下位的) 순서의 同形(=不連續)으로부터 한 雙의 內部的(=上位的) 순서의 連續的 同形(連續₁/連續₂)의 존재 내지 그 조직이 認知 또는 豫見되는 것과 마찬가지로, 展望的으로, 즉 連續的으로, 세계의 同形的 類型 가운데서 제일 連續的인 內部的(=上位的) 순서의 同形(=連續₁)으로 부터 그의 직접적이고 不連續的인 짝(=連續₂) 및 外部的(=下位的) 순서에 속하는 不連續의 존재 내지 조직이 認知 또는 豫見된다.

그러면 類型(1)¹⁰⁾을 보기로 하자: —

疑問의 同形¹¹⁾:

(屈折<2>=再歸代名詞에 대응하는) 屈折(1)類型的 가장 連續的인 (=매듭 零(ϕ)으로서의) 同形으로서의 ₁連續은 疑問의 價値(뜻)를 갖는데, 그것은 그 內部에서 ₁連續 즉 ₁零(ϕ) (=매듭 零(ϕ))을 同形化하고 그 外部에서 ₂連續 즉 ₂零(ϕ)를 同形化한다. 그 다음 차례

in English', in *Studies in English Grammar*, P.U.L., pp.79-102; Nzenge Mbulamoko (1973), *Verbe et Personne*, Tübingen, p.187 이하.

- 9) 同形的 순서에 관해서는: 拙稿(1988), '位置言語學과 統辭論: 形態의 分析論과 統辭的 非分析論의 區分의 問題를 中心으로', 人文論叢 第20輯, pp.175-237 참조; 並置단계에서의 同形 零(ϕ)적인 理論의 始發 내지 그 展開에 관해서는: Guillaume (1982), *Leçons de Linguistique*, p.183; André Joly (1987), 'Pour une approche psychomécanique de l'énonciation', in *E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*, P.U.L., pp.11-58; André Joly (1987), 'Sur le système de la personne', in *E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*, P.U.L., pp.59-97, 등 참조. 또 아래 그림(그림 2의 Guillaume식 並置단계의 그림) 및 類型論에 관한 설명 부분(그림: p.135) 참조. Gérard Moignet는 變形生成文法과 心理力學論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公式의 對比로써 설명하고 있다. 즉:

○ 變形生成文法의 公式: S(文章)=N.P.(名詞句)+V.P.(動詞句);

○ 心理力學論의 公式: S(文章)=P. Pron.(人稱代名詞)+V.P. (動詞句).

위의 두 公式의 對比는 첫째로: 人稱代名詞의 零(ϕ)形性和 名詞句의, 零(ϕ)形性的 有·無의 對比를, 둘째로: 展望的(下降的/連續的) 實現(↓)과 回顧的(上昇的/不連續的) 被實現(↑)이라는 異(逆)方向的 心理運動形態(↓)로 구성된 心理運動形態의 組織 觀의 有·無의 차이를 들어내는 對比라고 볼 수 있다.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, Moignet의 觀點이 Guillaume과 같이 並置단계를 完全히 脫皮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, 위 두 公式의 對比는 두 理論의 本質적인 차이를 들어낸 對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Moignet, (1971) 'Verbe unipersonnel et voix verbale,' in *Travaux de Linguistique et de Littérature*, pp.268-269 및 J. Teyssier (1981), 'Le système du pronom personnel allemand et ses implications morpho-syntaxiques,' in *Langag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*, P.U.L./Québec, pp.170-171 참조.

10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.

11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; “의문-반문-대답”은 근원적(形態論的) 同形的 조직의 再構에 있어 기본이 되는 物理的 사실이 된다.

로, 이 ${}_2$ 連續 즉 ${}_2$ 零(${}_2\phi$)는 ${}_1$ 連續 즉 ${}_1$ 零(${}_1\phi$)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${}_1$ 零(${}_1\phi$) 즉 ${}_1$ 連續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不連續的 疑問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不連續的 疑問은 ${}_1$ 零(${}_1\phi$) 즉 ${}_1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${}_1$ 零(${}_1\phi$) 즉 ${}_1$ 連續를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1$ 連續적 疑問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${}_1$ 連續적 疑問은 ${}_1$ 零(${}_1\phi$) 즉 ${}_1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${}_2$ 零(${}_2\phi$) 즉 ${}_2$ 連續를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2$ 連續적 疑問이 된다.

대답의 同形¹²⁾ :

전체적인 ${}_1$ 連續로서의 疑問은 전체적인 ${}_2$ 連續로서의 大답을 同形化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大답 즉 ${}_2$ 連續는 疑問 즉 ${}_1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부분(=비전체)으로서의 不連續的 疑問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不連續的 大답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不連續的 大답은 疑問 즉 ${}_1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부분(=비전체)으로서의 ${}_1$ 連續적 疑問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1$ 連續적 大답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${}_1$ 連續적 大답은 疑問 즉 ${}_1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부분(=비전체)으로서의 ${}_2$ 連續적 疑問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2$ 連續적 大답이 된다.

反問의 同形¹³⁾ :

${}_2$ 連續(= ${}_1$ 不連續적 疑問=(1)로서의 疑問과 大답)로서의 大답은 不連續(= ${}_2$ 不連續적 疑問=(2)로서의 疑問과 大답)으로서의 反問을 同形化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反問 즉 不連續은 大답 즉 ${}_2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${}_1$ 連續적 大답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1$ 連續적 反問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${}_1$ 連續적 反問은 大답 즉 ${}_2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${}_2$ 連續적 大답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${}_2$ 連續적 反問이 된다. 그 다음 차례로, 이 ${}_2$ 連續적 反問은 大답 즉 ${}_2$ 連續에 의해서 同形化되는데, 이때, 그 同形の 출발점으로서 不連續的 大답을, 回顧的 즉 不連續的으로 취해서, 결과적으로는 不連續的 反問이 된다.

이상이 “疑問→反問→大답”, 즉 公式으로는: “ ${}_1U-({}_1\phi)\rightarrow({}_2S\rightarrow{}_1S)-({}_2\phi)\rightarrow{}_2U$ ”로 표시되는 同形的 조직의, 기계적인 말로의 표현이다. 그리고 이것은 同形的 조직 전체에 적용될 수

12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.

13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.

14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.

있을 것이다.

만일에 이 ₁連續¹⁴⁾ 同形的 조직 내부에서의 이 人稱의 同形的 조직이 조직 전체에, 다시 말해서 “₁連續(=屈折의 類型의 人稱: “疑問→대답”→不連續(=代名詞의 類型의 人稱)→₂連續(=動詞의 類型의 人稱)”의 조직에 적용된다고 할 때, 우리는 이 同形的 조직을 고려에 넣지 않고서는, 특히 不連續과 ₂連續 사이에, 예컨대 한편으로는 ₂連續(=動詞의 人稱)에서의 記述(순서 1)¹⁵⁾/他動(순서 2)/自動(순서 3)¹⁵⁾ 또는 被助動→助動(순서 2)/助動→被助動(순서 3)¹⁶⁾과, 다른 한편으로는, 不連續(=代名詞의 人稱)에서의 (主觀的) 再歸代名詞 (“il me plaît”〈난 그가 좋다〉/“il te plaît?”〈넌 그가 좋으냐?〉)에서의 me〈나〉/te〈너〉(不連續에서의 ₁連續) 또는 單一人稱¹⁷⁾(不連續에서의 ₂連續) 혹은 또 不連續(=代名詞의 人稱)에 있어서의 能動的(態的) 人稱 및 動詞→目的語 類型의 動詞慣用語¹⁸⁾(不連續에서의 不連續) 사이에 混同을 이르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를 自問해 볼 필요가 있다.

만일에 人稱의 同形的 조직의 이들 세 類型 즉: 1) 屈折의 人稱(疑問→대답), 2) 動詞의 (記述的) 人稱 그리고 3) 代名詞의 人稱이 인정된다면, 그것은 곧 Gustave Guillaume의 心理力學論 理論의 숨은 비밀에의 더 나은 그리고 더 빠른 접근을 허용하고, 견실하고 명석한 선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착수된 心理力學論의 研究를 加速化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.

15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.

16) 아래(그림 6) 公式 참조; Guillaume (1971), p.161 (아래 그림 11) 참조.

Hirtle (1935), 'Auxiliaries and voice in English', in *Les Langues Modernes*, LIX, pp.25-42 참조.

17) 아래(그림 4) 公式 참조; Gérard Moignet (1971), 참조.

18) 아래(그림 4) 公式 참조; Guillaume (1971), p.181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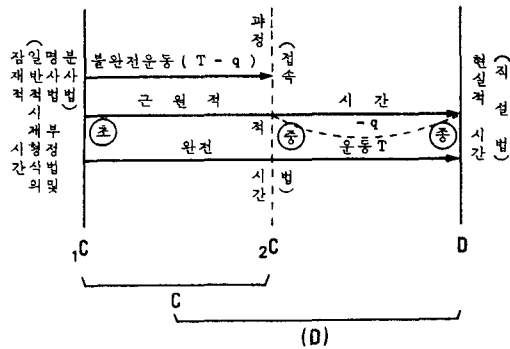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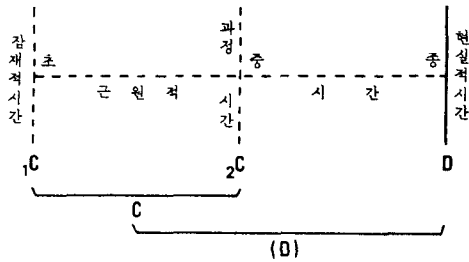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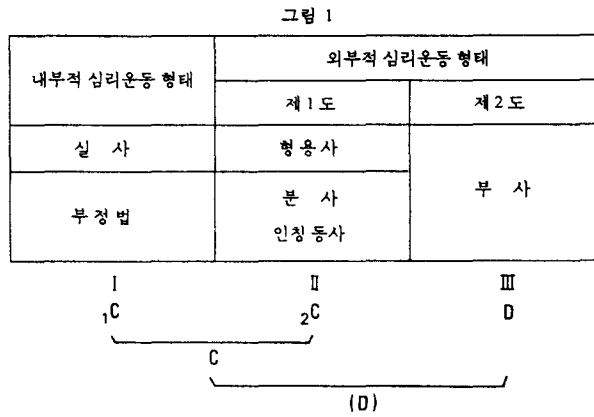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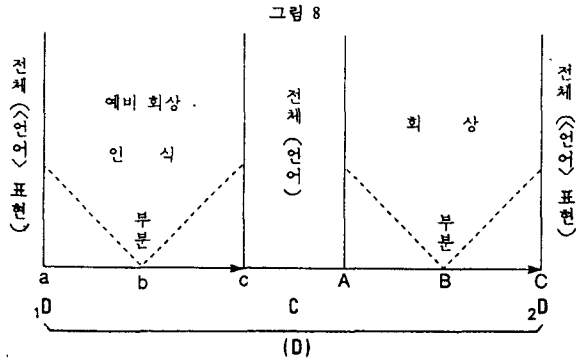
R. Valin (1981), p.79 이하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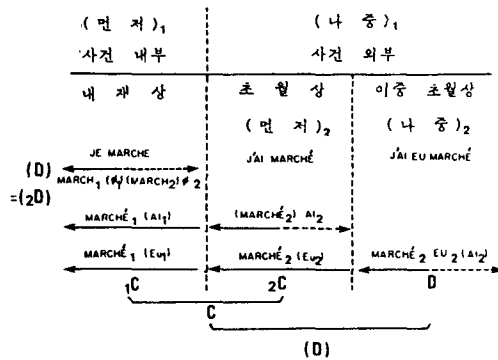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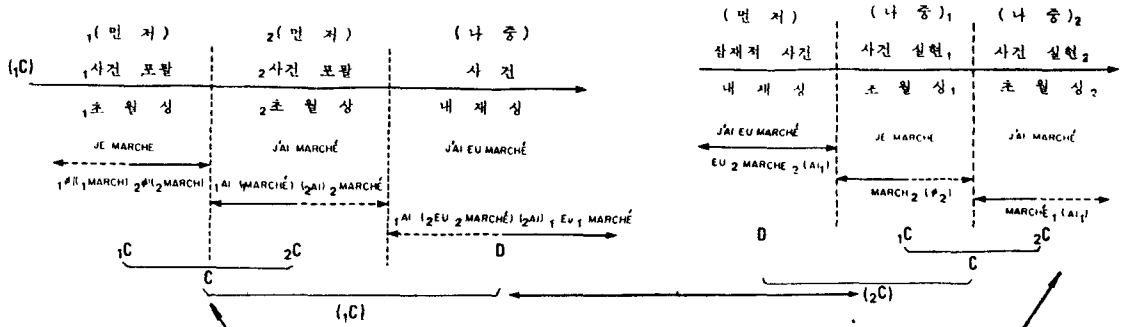
A. Joly (1987), 'La transitivité et ses corrélats,' Université René Descartes, pp.121-139;

G. Guimier (1988), *Syntaxe de l'Adverbe Anglais* (1988), P.U.L., Lille, p.83 이하;

Hervé Curat (1982), *La Locution Verbale en Français Moderne*, Les Presses de l'Université Laval, 참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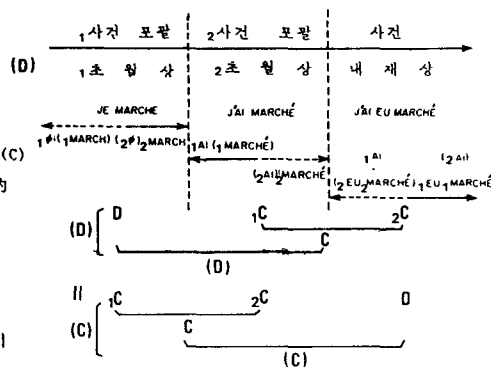
* 보충 사항: 앞(註 1)에다: Gustave Guillaume (1984), *Foundations for a Science of Language (Excerpts from the manuscripts translated by Walter Hirtle & John Hewson)*, John Benjamins Publishing Co., Amsterdam/Philadelphia, p.104, 를 보충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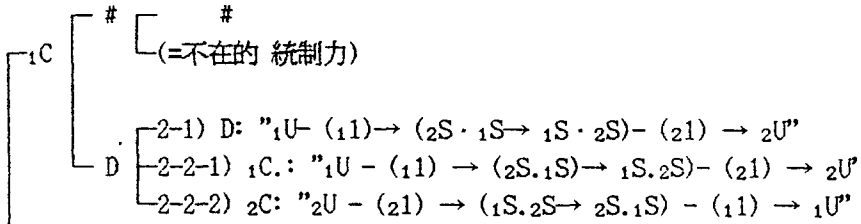


주의: 바로 옆 오른쪽 그림(D)은 그 바로 위의 그림(D)와 구별됨에 주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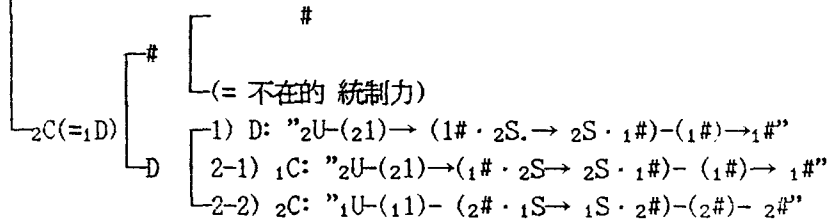
바로 위의 (D) = (2D)가 그 상위의 (2C)=(1D)과 분명히 구별되는 (D)=(2D)임에 반하여, 바로 옆의 (D)는 그 하위의 (C)와 구별되지 않는 (D)임에 주의. 바꿔말하면, 意味(D)의 테두리 안에서의 形態(C) 이면서, 그 意味(D)가 形態(C)라고 주장되는 主觀의 (恣意的) 성격을 띤 그러한 意味(D)와 형태(C)의 비분석적 位置라고 할 수 있음. 그러므로 이 非分析的 位置는 分析的 同形的 組織(mécanisme synaptique)(* 뒷 그림에서 ↔ 표로 연결된 조직)에 併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自然的 組織이 아닌 人爲的 組織으로 남게 된다고 할 수 있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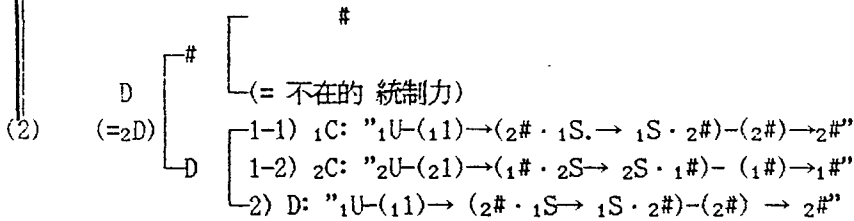
1連續(1C)的同形
 (=1內部的同形)
 同形の順序
 (1)



2連續(2C)的同形
 (=2內部的/外部的/不連續 1度(1D)的同形)
 同形の順序
 (2)



不連續(D)的同形
 (=外部的/不連續 2度(2D)的同形)
 同形の順序:
 (3)



주의 : V = 動詞

tu/je = 屈折 人稱

Axe = 被助動詞

e = etre <이다>

· E = être <있다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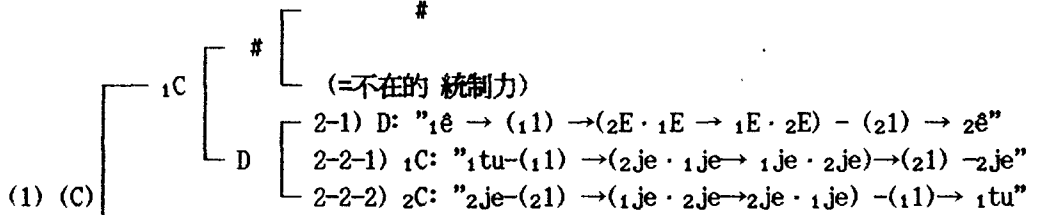
f = 屈折 形態

1連續(1C)의 同形

(=1內部的 同形)

同形의 順序:

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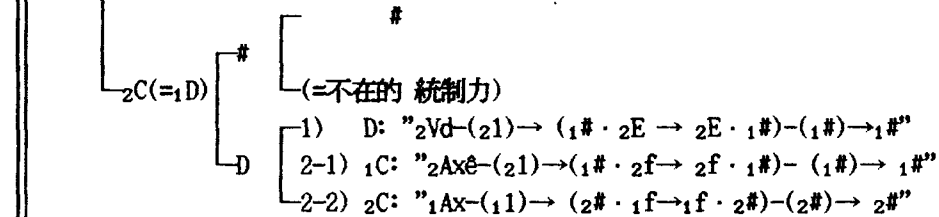


2連續(2C)의 同形

(=2內部的/外部的/不連續 1度(1D)의 同形)

同形의 順序:

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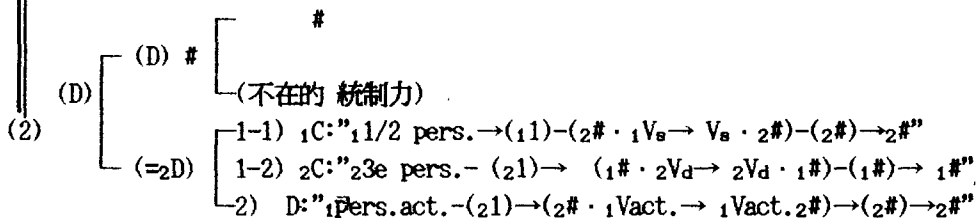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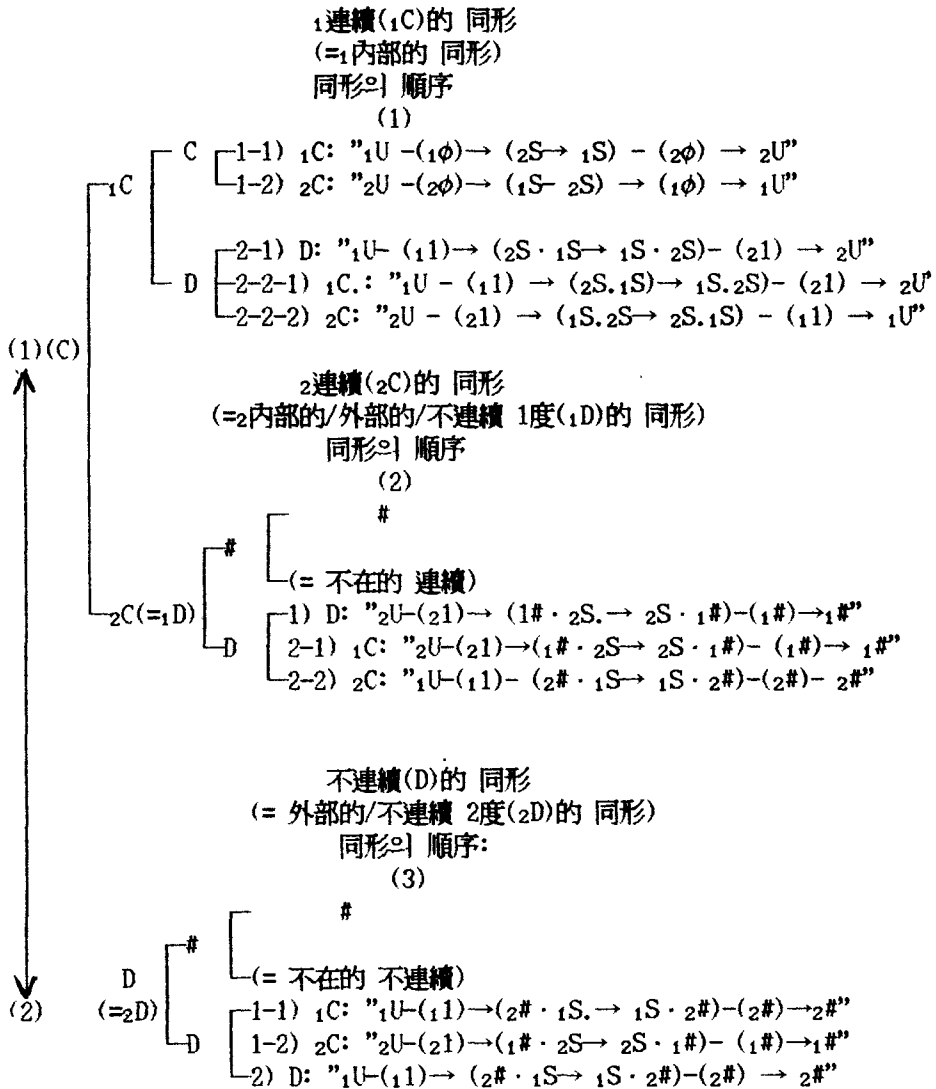
不連續(D)의 同形

(=外部的/不連續 2度(2D)의 同形)

同形의 順序:

(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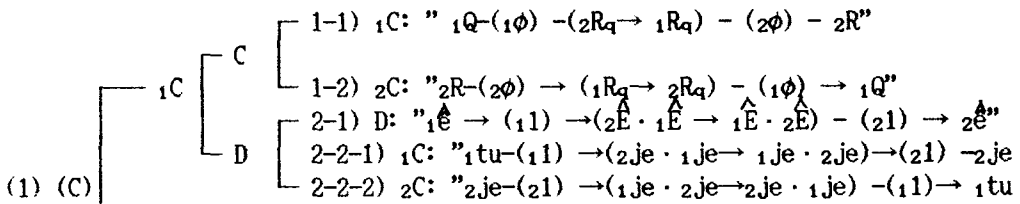




- 주의 : Vs = 主觀動詞 Q = 의문
 Vd = 記述動詞 R = 대답
 Ax = 助禮動詞 Rq = 反問
 Vact = 動作動詞 Pers. act. = 能動人稱
 V = 動詞 tu/je = 屈折人稱
 Axé = 被助動詞
 Ê = être <이다>
 Ê = être <있다>
 f = 屈折形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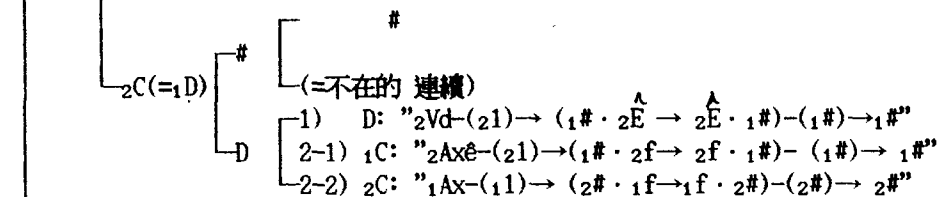
1連續(1C)의 同形
 (=1内部的 同形)
 同形的 順序:

(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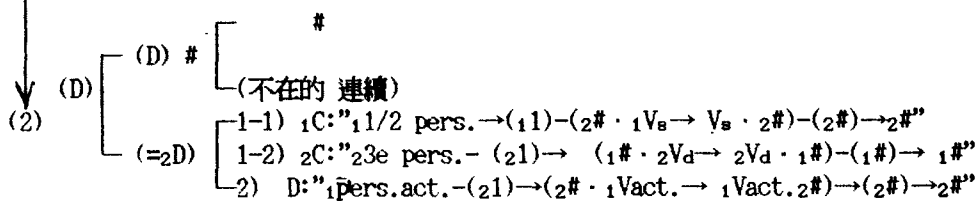
2連續(2C)의 同形
 (=2内部的/外部的/不連續 1度(1D)의 同形)
 同形的 順序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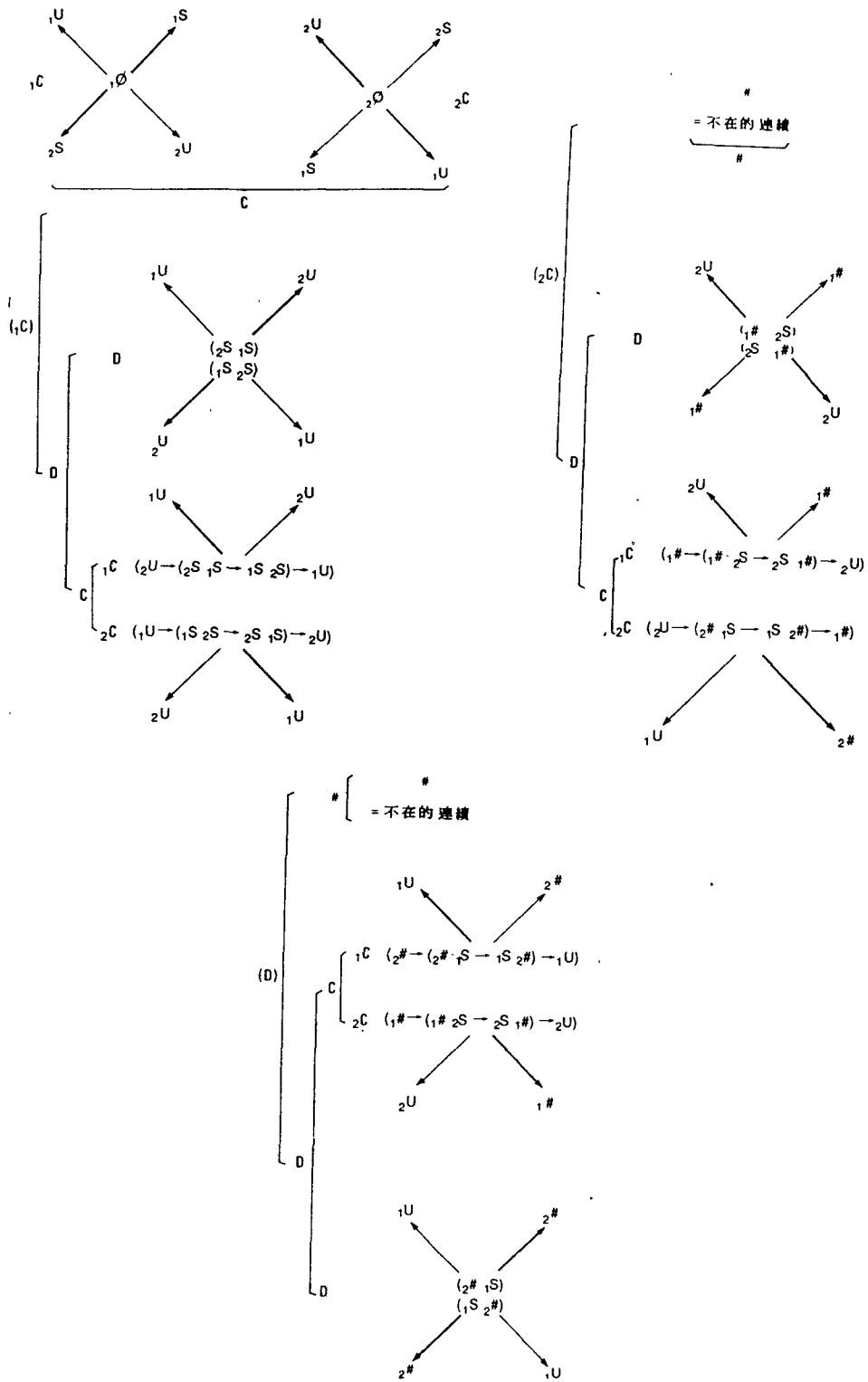
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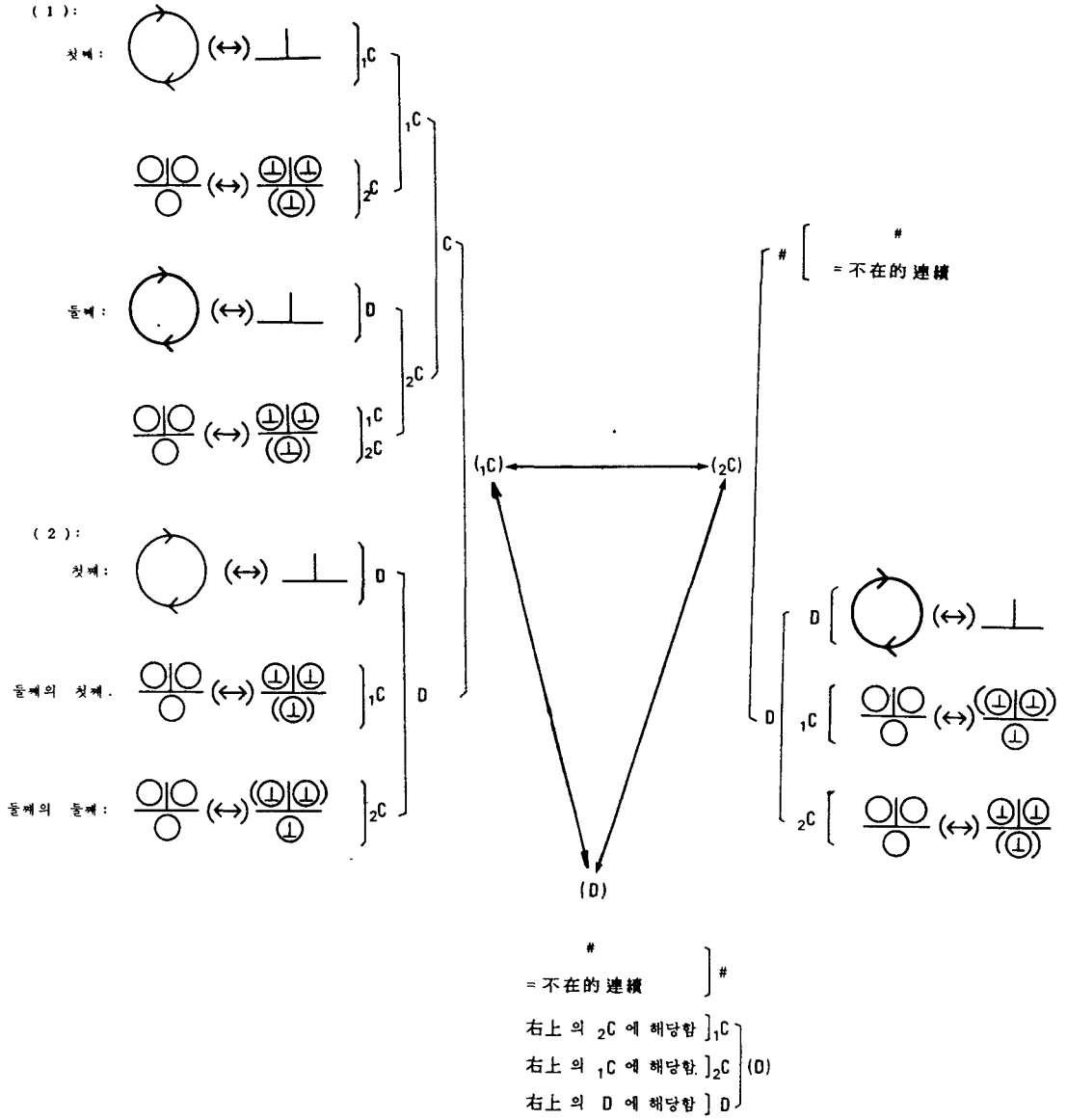


不連續(D)의 同形
 (=外部的/不連續 2度(2D)의 同形)
 同形的 順序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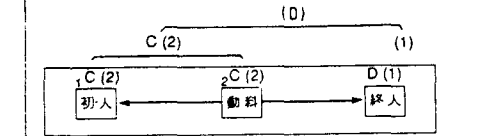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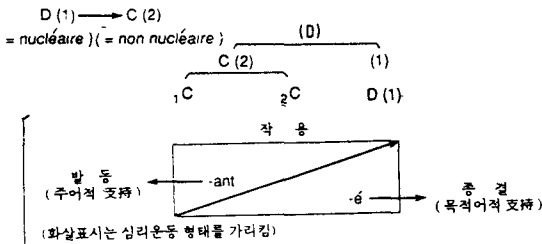
(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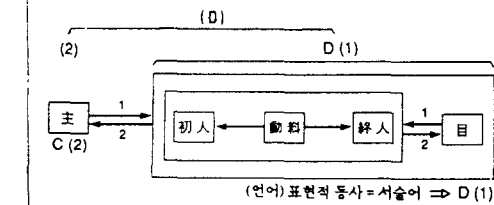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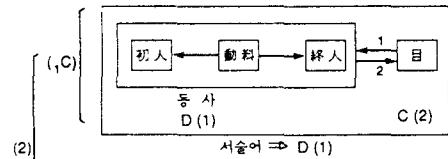
주의 C/D 등 표시는 필자에 의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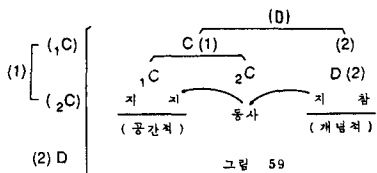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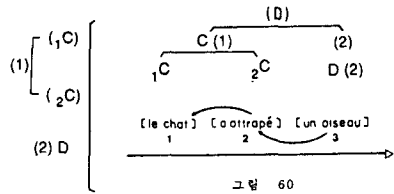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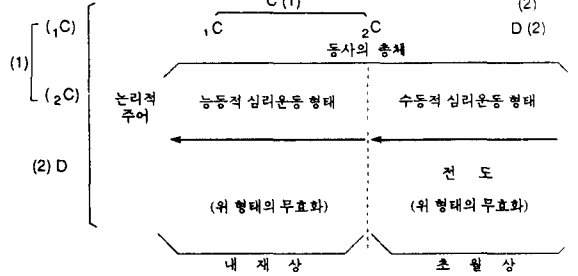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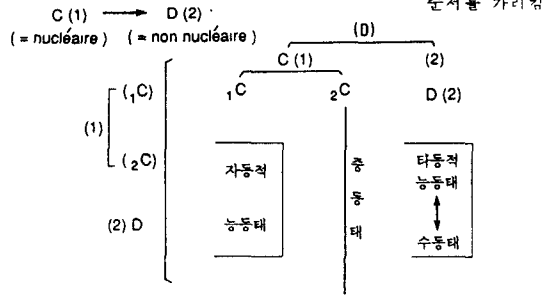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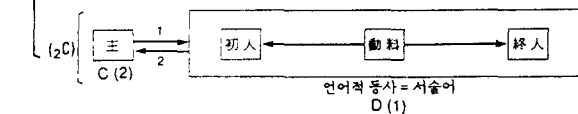
1) 초인 = 初的人稱 ⇒ ${}_1C$ (2)
 동자 = 동사적 實詞 ⇒ ${}_2C$ (2)
 종인 = 終的人稱 ⇒ D (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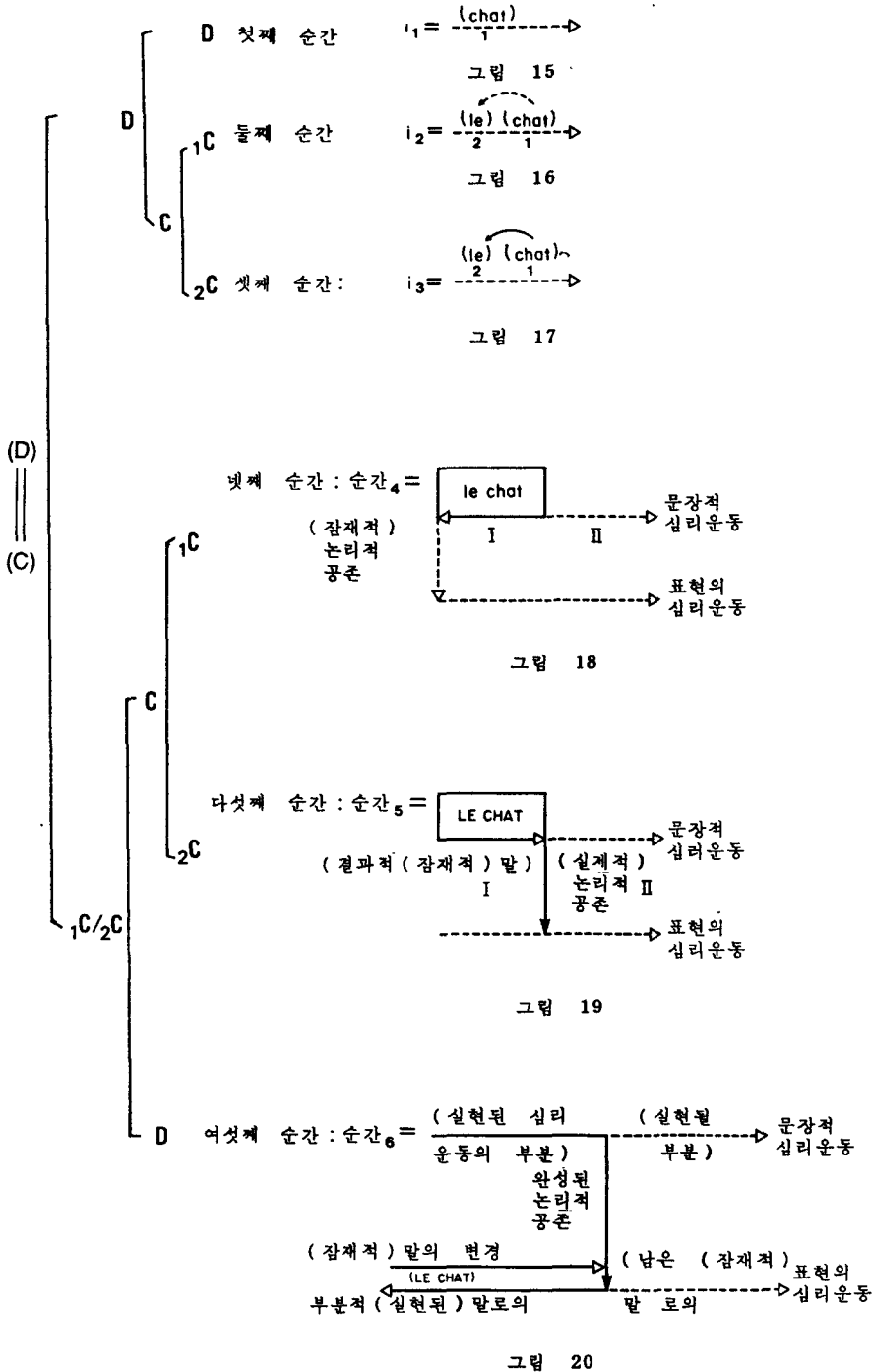
초인 = 初的人稱 ⇒ ${}_1C$ (2)
 동자 = 동사적 實詞 ⇒ ${}_2C$ (2)
 종인 = 終的人稱 ⇒ D (1)
 1 = 동사적 심리운동 형태 ⇒ C (2)
 2 = 의미적 심리운동 형태 ⇒ D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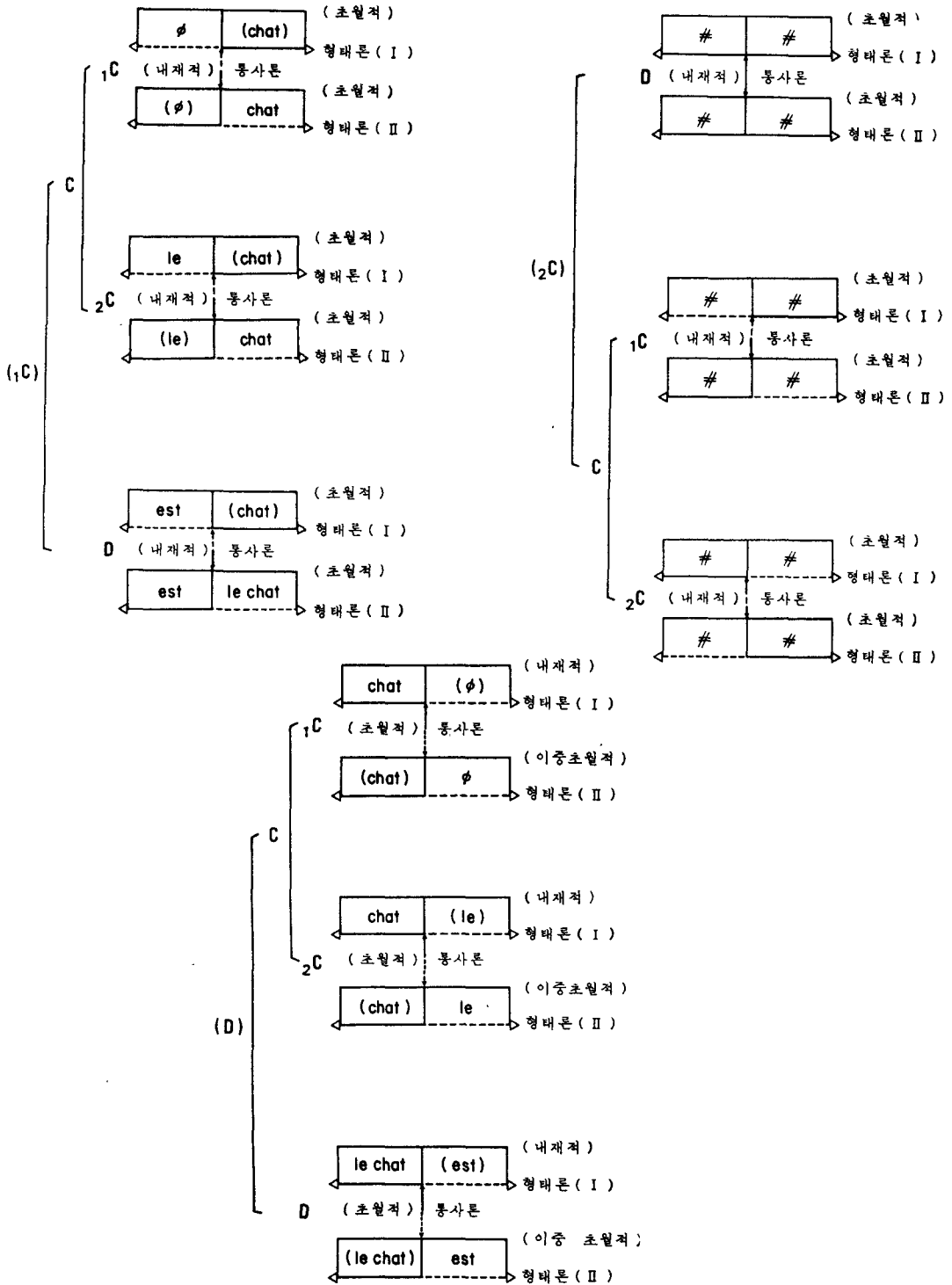


1 = 동사적 심리운동 형태 ⇒ C (2)
 2 = 의미적 심리운동 형태 ⇒ D (1)



주의 : 이 그림은 다음 페이지 (p.)의 맨 밑에 놓임.





Résumé (Addenda)

**Fondement Théorique pour l'Explication Synaptique de
"Nucléaire (=forme) — Non Nucléaire (=matière)":
l'exemple de *personne et verbe*.**

Hyong-Dal Pak

Cette étude vise à construire une méthode d'analyse du *mécanisme d'incidence* (=forme de mouvement de pensée) constitué des deux termes: *matière/forme*, en se fondant sur la notion de *synapse* (=incidence/ambiguïté/(con) fusion/identification/syncrétisme)—l'emploi de ce terme est jugé plus convenable que celui de *l'incidence* pour indiquer la *genèse* du mécanisme en question et pour dissiper tout malentendu que l'une et l'autre se diffèrent—et, en traitant, comme son objet, de la *personne*, laquelle est considérée comme une *incidence* avec le *noeud* de nature de *zéro* (ϕ) par rapport à d'autres *incidences* avec le *noeud* de nature de *non-zéro*, c'-à-d., *un* (=1 : comme la formule habituelle de Guillaume: par ex.: *langue + discours = 1*, *expression + expressivité = 1*, etc.).

Nous voudrions avancer comme résultat de cette étude sur le *mécanisme synaptique de la personne* les points suivants:

1) l'*ordre synaptique* des deux constituants (*forme/matière*) du *mécanisme* en cause est vu successivement suivre celui de mouvement tel que:

"*nucléaire* (=forme) en tant que *continu*₁ (=virtuel₁) et *interne*₁ (=supérieur₁) ou ⁽¹⁾*refusant* → *non nucléaire* (=matière) en tant que *continu*₂ (=virtuel₂) et *interne*₂ (=supérieur₂) ou ⁽²⁾*refusé, encadrant*, tous les deux, l'autre *encadré*: "*nucléaire* (=forme) → *non nucléaire* (=matière)", en tant que *discontinu* (=actuel) et *externe* (=inférieur) ou ⁽¹⁾*juxtaposé*, lequel est, on comprend, proche du stade de Guillaume (en ce sens que *Guillaume* vise à chercher la *forme* dans le cadre de la *matière*, ce que reflète la *typologie guillaumieune*, comme le montre le **tableau** de la page 135 ci-dessous). En figure (voir le **tableau en haut** de la page 134 ci-après):

2) cet *ordre synaptique* peut être encore précisé en terme de *prospectif* (=continu)/*rétrospectif* (=discontinu), déjà impliqué dans le **tableau en haut** (de la page 66), comme le **tableau en bas** (de la même page).

On pourra encore préciser le **tableau en haut** en *utilisant* (de la manière suivante) utilisant les deux *formules* combinées, c-à-d., la *formule du type* (1): " ${}_1U \rightarrow {}_1S_2 \rightarrow U_2$ ", la

formule habituelle *guillaumienne* qui dit que “ U_1 ” et “ U_2 ” (=forme) encadre “ S_2 ” (=matière),” cela toujours dans le cadre de “ S_2 ” (=matière) en tant que *noeud* de nature de *non zéro* (=1), au lieu de celui de nature de *zéro* (=0), et la *formule du type* (2): “ $S \rightarrow U_2 \rightarrow S_2$ ”, laquelle vise à expliquer l’*origine* de la *langue* (= U_2) à partir du *discours* (= S et S_2 : le *discours d’enfant*, par exemple), d’où “ S ” et “ S_2 ” en tant que *matière/discours* encadrant “ U_2 ” en tant que *forme/langue*, cela toujours dans le cadre de “ U_2 ” en tant que *langue matérielle*, c’-à-d., en tant que *noeud* de nature de *non zéro* (=1), au lieu de celui de nature de *zéro* (=0):

d’abord, la *formule du type* (1) (“ $U \rightarrow S_2 \rightarrow U_2$ ”) est utilisable pour représenter l’*incidence* (=synapse) *prospective* (\downarrow), les deux termes (U et U_2) encadrant (=synaptisant) le terme (S_2);

ensuite, la *formule du type* (2) (“ $S \rightarrow U_2 \rightarrow S_2$ ”) peut être pris pour la représentation de la *synapse* (=incidence) *rétrospective* (\uparrow) de la *formule* (1) (“ $U \rightarrow S_2 \rightarrow U_2$ ”), autrement dit, pour la représentation de la *synapse rétrospective* (\uparrow) (de la *formule* (1) (“ $U \rightarrow S_2 \rightarrow U_2$ ”)) (le terme (S_2) encadré (=synaptisé) par les deux termes (U et U_2)). En somme, on peut employer la *formule* (2) (“ $S \rightarrow U_2 \rightarrow S_2$ ”), en faisant le terme (U_2) le *point de départ* de sa *synapse rétrospective* (\uparrow), lequel *reprend* les deux termes (U et U_2) de la *synapse prospective* (\downarrow) de la *formule* (1), et *devient*, en conséquence, “ S ” et “ S_2 ”;

enfin, en combinant la *formule* (1) (“ $U \rightarrow S_2 \rightarrow U_2$ ”), la *synapse prospective* (\downarrow), et la *formule* (2) (“ $S \rightarrow U_2 \rightarrow S_2$ ”), la *synapse rétrospective* (\uparrow), on pourra représenter deux types distincts du *mécanisme synaptique* en question:

d’abord, le *mécanisme synaptique formel/continu*, constitué de: “refusant→juxtaposé→refusé,” dans le cadre de “refusant→refusé,” tel qu’il est décrit ci-dessus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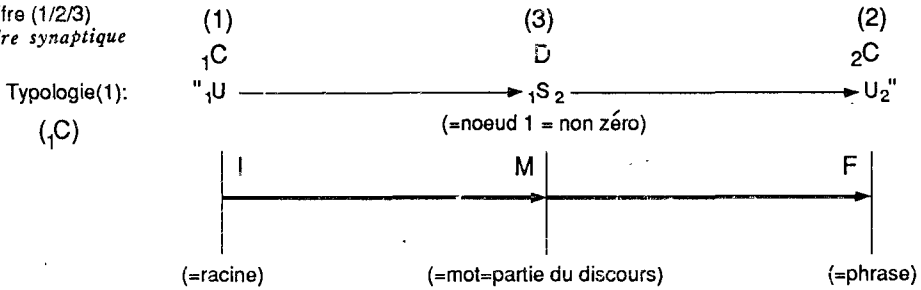
ensuite, le *mécanisme synaptique matériel/juxtaposé/discontinu*, constitué apparemment de la même manière que le premier: “refusant→juxtaposé→refusé,” cela non dans le cadre de “refusant→refusé,” comme dans le premier, mais dans le cadre du “juxtaposé/discontinu.”

Le **premier** *mécanisme synaptique formel/continu* peut être représenté, à l’aide de la *formule prospective/continue* (\downarrow): (1) (“ $U \rightarrow S_2 \rightarrow U_2$ ”) et de la *formule rétrospective/discontinu* (\uparrow): (2) (“ $S \rightarrow U_2 \rightarrow S_2$ ”), avec l’*arbre* à côté, comme le montre le **tableau en haut** de la page 66 ci-dessu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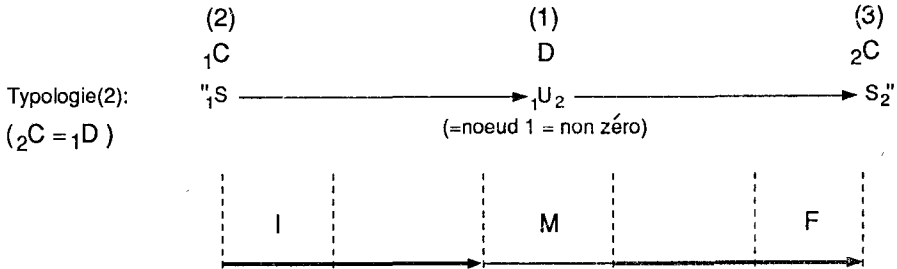
Il peut être plus précisément représenté, à l’aide de l’*arbre continu*, comme le **tableau en bas** de la même page que ci-dessus.

Le **second** *mécanisme synaptique matériel/juxtaposé/discontinu* peut se caractériser par

N.B : le chiffre (1/2/3) indique *ordre synaptique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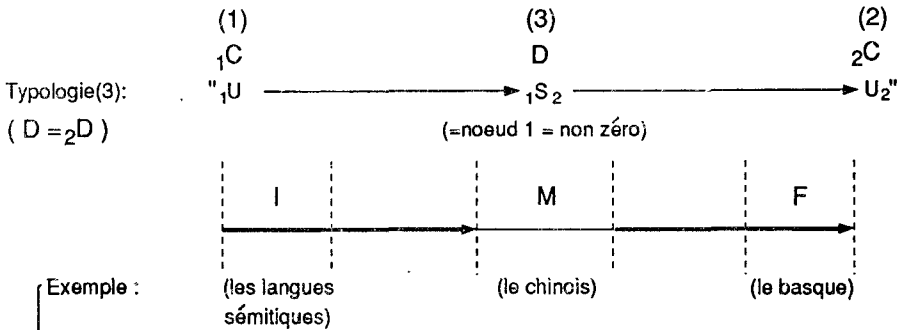
Exemple : le français / l'anglais ci la plupart des langues indo-européennes
N.B. : ce tableau, replacé verticalement, ne possède que la morphologie horizontale (=continu).



Exemple :

le chinois = langue groupante ou isolée = langue syllabique ou idéographique.	le basque (hongrois, ... etc.) doué de phrase-mot = langue agglutinante = les éléments généraux apparaissent à la fin conclusive de la phrase, ceux de particuliers, au mot.	les langues sémitiques : consonne radicale + voyelle morphologique : <u>katib</u> , <u>kitab</u> , etc...
---	--	---

N.B. : ce tableau, replacé verticalement, possède aussi bien la morphologie horizontale (= continue) que celle de verticale (= discontinue).



N.B. : la même remarque que celle dans la typologie (2) ci-dessus.

le fait qu'il ne suppose pas, au dessus de lui-même, la *synapse interne* (=supérieure/formelle), "refusant→refusé," mais insiste *subjectivement* sur sa caractéristique *interne/formelle*, et confond lui-même avec la première; dans cette condition, il peut en résulter que:

ou bien il peut confondre lui-même avec l'un des deux *mécanisme synaptiques internes*, "refusant→refusé", ou avec le "juxtaposé" *encadré* par lui;

ou bien il se peut que chaque *mécanisme synaptique*, envisagé de cette manière, soit *expressément* déclaré comme *interne*, sans lien *aucun* (=avec *lien seulement discontinu*) entre eux, faute de *mécanisme synaptique interne* (=supérieure) en tant que *force de contrôle*.

Tel est le cas de la *typologie linguistique guillaumienne* qui reflète les *coordonnés* de la *théorie psychomécanique guillaumienne*, et qui pourra se représenter, au moyen des deux formules, c.-à-d., celle de *prospective/continue*: (1) (" ${}_1U \rightarrow {}_1S_2 \rightarrow U_2$ ") et celle de *rétrospective/discontinue*: (2) (" ${}_1S \rightarrow {}_1U_2 \rightarrow S_2$ "), comme le **tableau** de la page 135 ci-dessus.

Chaque *typologie linguistique* en tant que *mécanisme synaptique* peut être (*expressément* ou *subjectivement*) déclaré comme *noeud central/interne/formel* (situé au *centre* de chaque schéma ci-dessus), sans lien *aucun* (=formel) (=avec *lien seulement discontinu/matériel*) l'un à l'autre, faute du *mécanisme synaptique interne* (*formel/supérieur*) en tant que *force de contrôle*, auquel doit nécessairement *s'incorporer* toute *typologie disparate* et *discontinue* de ce type, et dans le cadre duquel on doit faire subir un traitement *égal* et *formel* à *toute les langues*: cela ne veut-il pas dire que les langues assignées à chaque typologie dans cet ordre, c'-à-d., dans l'ordre de la *formule du type* (1): " ${}_1U \rightarrow {}_1S_2 \rightarrow U_2$ " correspondant à: "les sémitiques→le français • le chinois→le basque," peuvent être *également* représentées (à cause de la *non différenciation* de la *représentation formelle du type* (1) (" ${}_1U \rightarrow {}_1S_2 \rightarrow U_2$ ") et *celle de matérielle du type* (2) (" ${}_1S \rightarrow {}_1U_2 \rightarrow S_2$ "), c.-à-d., à cause de l'*identité* des deux représentations de nature *uniquement matérielle* et *arbitraire*) dans l'ordre de la *formule du type* (2): " ${}_1S \rightarrow {}_1U_2 \rightarrow S_2$ " correspondant à: "le français→les sémitiques • le basque→le chinois", l'*implication de cette transformation de l'assignation des langues du type* (1) en *type* (2) *étant purement figurative (matérielle)**, et que toutes les langues peuvent être traitées de façon *uniquement formelle* et *non arbitraire* dans l'*ordre synaptique* (*formel*) indiqué par les *noms* (*figuratifs* <*matériels*> par nature mais *formellement* interprétables) des langues dans le *schéma* ci-dessus?

- * Par '*figuratif*', nous entendons *l'effet (la trace) visible*, dans le *fait physique (=traditionnel ou logique)*, de la lutte du *mécanisme synaptique (mental)* contre le *physique*, et *utilisable* pour la *reconstruction* de ce *mécanisme (génétique)*.